

어느 어린 소년이요, 종려 주일에 마침 아파서 엄마와 함께 집에 머물러 있었다고해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종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 어린 아들은 궁금해하며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빠, 그 종려나무 가지를 왜 가지고 계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하길,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모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분을 환영했거든. 그래서 오늘 아빠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거야.”

그러자 그 어린 아들이 아쉬워하며 이렇게 말했데요. “아, 나는 이번 주일만 교회에 못갔는데, 하필 내가 빠진 주일에 예수님이 다녀가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20). 예수님께서서는 매 주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정성 어린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할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에 시작해서, 주일을 제외하고 40일간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한 주간 전, 종려주일(Palm Sunday)과 고난주간(Holy week)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들의 겂옷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며 ‘호산나!’ 환호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 주일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대략

걸어서 1시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요. 디아스포라로 각지에서 흩어져 살고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명절 즉,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 들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몰려든 인파는 200만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때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도 컸을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상주하며 로마 군인들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 상태에서 폭동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모든 백성이 환호하며 따르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게 될까봐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당시 종려나무는 [타마르] 혹은 다말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들에게는 “대추야자” 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절반이 광야인데, 그 척박한 땅에서도 잘 견디는 나무이고 400년가량을 사는 나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에 대추야자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종려나무는 “다산” 을 상징했구요, 한편 으론 척박한 광야에서의 생명력 때문에 “승리” 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올 것으로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종려나무처럼, 풍족한 생활과 승리의 생활을 꿈꿨을 겁니다. 로마의 속박에서도 벗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히브리말의 음역으로,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이겠습니까? 가난으로부터 구원일 것이고,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일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역할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의 역할은 분명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은 분명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며 그들을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들의 욕망의 배를 부르게 해 줄 능력의 왕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시면, 그들은 등 뜨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겠죠. 그 옛날 이천년 전의 사회 모습은 그야말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

로 혼란했던 때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온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십자가를 길, 고난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9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이 땅에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한 곳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렀던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가야 할 본향이 있고 쉬어야 할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박한 삶에도 행복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 순례자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기름부음을 통해서 세워졌던 3가지의 중요한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만이 맡을 수 있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는 일을 했고, 제사장은 백성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직분이었고,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전까지 400년동안 선지자는 아예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상태였고, 제사장들은 타락하여 로마 정권과 손잡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어요. 새벽에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당시 상황은 캄캄한 어둠으로 덮여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무척이나 지쳐있었습니다. 해서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완전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시는 그 분을 기다린 겁니다. 그 분이 오시면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백성들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왕으로서 인정할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베들레헴 초라한 여인숙의 마굿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흠모할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가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으며, 그는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치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당시 왕은 나귀를 타지 않고 주로 말을 탔다고 합니다. 간혹 왕들 가운데 나귀보다 몸집이 큰 노새를 탔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데도 나귀를 타신 것도 아니고 나귀새끼를 타셨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나귀새끼를 타신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스스로 낮아져야 함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점검해 봐야 해요.

오늘날 우리들도 혹시 나 자신의 신앙이 당시의 군중과 동일선상에 있지 않은지 반성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야 하구요, 나의 뜻이 중요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뜻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도 환호하는 군중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마자 어떤 일이 있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그 땅이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뉘우쳐 회개하지 않고 점점 강박해져 가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주님께서 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케 될 것을 아시고 탄식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영광으로 바꾸려고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서 "호산나"외치며 기뻐하고 있었을 때, 홀로 눈물을 흘리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24-25)

이 고백을 잘 음미해 보세요. 바울은 "사망의 몸"이라는 자신의 처절한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이 상반되어 보이는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말씀은 인간이 가진 죄성이라든지 죄의 세력, 죄 자체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

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내 속에 죄에 쉽게 무너지는 이런 연약함과 무기력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나의 죄악됨을 깨닫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즉, 죄사함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은혜의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를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청혼을 했다고 해요. 그 때 칸트는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생각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곤 본격적으로 생각에 몰입했습니다. 이윽고 생각이 끝나고, 칸트는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아버지가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은 이미 결혼했다네. 지금은 아이가 둘이나 있지. 그래 그동안 자네는 어디에 있었는가?” 칸트가 생각에 몰두한 지 이미 7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난 뒤였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결혼을 해야 하는 354가지 이유가 적혀 있었고 또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350가지 이유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4가지 더 많았기에 힘들게 내린 결론을 가지고 그 여인의 집을 방문했지만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었죠. 그 여인은 이미 결혼을 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 앞에 마찬가지로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또한 제자로 살라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때때로 ‘잠깐만요! 생각좀 해 보구요. 앞뒤를 좀 잘 따져보구요. 들과 실을 잘 헤아려보구요.’ 하면서 은혜의 때를 낭비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바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똑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다시 일으

켜 세워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감사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기다림 뒤에 영광과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